



고창군이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의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점검하는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고창군, 공약 이행 '순조'

32개 세부사업 중 7개 조기완료 · 25개 임기내 마무리 정상 추진

민선6기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의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점검하는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군은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청 상황실에서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고창군은 민선6기 출범과 함께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고창 건설'의 비전을 제시하고 생활복지 실현, 문화관광 기반구축, 명품 농어촌 건설의 3대 목표에 따라 군정을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6개 분야 23개 사업, 32개 세부사업을 분류해 공약사업을 추진

하고 있으며 7개 사업은 조기 완료하고 나머지 25개 사업도 임기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상 추진하고 있다.

특히, 무료예방접종은 대상자를 65세에서 60세 이상부터로 확대하여 매년 2만여 명의 군민이 혜택을 받고 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하는 청렴도 평가는 5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향되는 성과를 올렸다.

아울러 한우명품화 사업을 추진한 결과 1등급 고급육 출현율이 52%에서 62%까지 향상됐고 전통산업과 연계

한 일자리 마련과 한옥자원 활용 야간공연을 비롯해 주말 거리공연을 120회 이상 실시해 2만4000여명이 관람하는 등 군민 문화생활 향유에도 기여하고 있다.

박우정 군수는 "군민들의 비박과 민심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추진이 미진한 부분은 보완을 통해 명확한 목표 제시와 실천계획을 보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군민에게 기쁨을 주는 명품 고창건설에 모든 공직자가 솔선수범하자"고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시보건소 식중독 예방 이렇게

3대 요령 손 씻기 · 익혀먹기 · 끓여먹기 준수 당부

남원시보건소(소장 최태성)에서는 최근 때 이른 고온현상과 큰 일교차로 음식물 관리에 조금만 소홀해도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어 음식물의 보관, 관리,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여름철 대표 음식인 냉면, 궁국수 등에 사용되는 육수, 궁국은 병원성 대장균 등 세균이 자라기에 충분한 영양분이 있어 더욱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식재료의 취급요령, 조리요령과 섭취요령 등 단계별 식품안전 관리 방법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재료 취급요령으로는 필요한

양만 상온보관 식품부터 냉장, 냉동식품의 순으로 유통기한, 표시사항 등을 잘 확인하여 신선한 식품을 구입하고, 식품을 운반·보관할 때는 아이스박스, 아이스팩 등을 이용하여 10℃ 이하 냉장상태로 차갑게 운반하며 음식물을 차량 내부에 오랫동안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

올바른 조리요령으로는 조리하는 조리 전에는 비누 등 손 세정제로 30초 이상 반드시 손을 씻고, 닭 등 가금류, 수산물 등을 세척할 때는 주변에 생으로 섭취하는 채소, 과일 등에 물이 튀지 않도록 주의하고, 도마·칼 등은 식품의 종류

별로 구분 사용은 물론 올바른 세척과 소독으로 교차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섭취요령으로는 식사 전에 반드시 손을 씻고, 물은 반드시 끓여먹으며 날 음식과 익힌 음식은 구분하여 보관하고, 조리한 음식은 상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섭취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여름철을 맞아 식중독 발병률도 높아진 만큼, 가정 내 식중독 예방 3대요령(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준수가 가족건강을 지키기 위한 당부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 미래비전 · 발전전략 착수보고 간담회

임실군은 '새로운 변화, 살고 싶은 임실' 건설과 중장기 미래성장 핵심 전략사업 발굴을 위해 임실군 미래비전 및 발전전략 수립 연구(이하 임실미래발전연구) 착수보고 간담회를 지난 10일 군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심민 군수를 비롯한 안흥기 지역경제연구원장, 김영오 문화관광연구부장, 주요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성장 핵심전략 발굴을 통한 국가예산 확보 및 정책기 본지침으로 활용하기 위한 수행방향 공유와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임실미래발전연구'는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과 전북연구원 공동으로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진행되며, 임실발전 미래상 현상 및 여건 분석,

미래발전 전략 및 부문별 계획안, 권역별 특화발전계획, 우선순위 및 투자 계획 등을 수립하게 된다.

군은 이렇게 수립된 계획을 바탕으로 오는 2017년부터 2026년까지 특화된 비전을 확정하고 전략사업 발굴을 통해 국가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중장기적 방향과 계획들을 구체화한 전략사업 실행을 위한 정책기초지침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바람직한 미래 창조를 위해 발전전략별 선도사업과 부문별·권역별 특화발전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연구원 연구진은 지난 9일과 10일 지역내 주요사업지구 및 시설을 현지답사하며 현실적인 계획 수립을 위한 첫 번째 지역현황 파악을 실시했다. /임실=진종영 기자

남원시, 우렁이농법 도입 '남원참미' 판촉 행사

남원시는 고품질 공평브랜드 쌀 육성을 위하여 품종종립과 친환경 우렁이 농법을 도입한 밥맛 좋은 '남원참미'의 우수성을 서울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판촉 행사를 가졌다.

지난 5월 하순부터 6월 8일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에 소재해 있는 농협유통센터에서 수도권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남원 우수브랜드 쌀 '남원참미'의 우수성을 홍보 하였다.

이번 판촉행사에는 남원시와 남원시의회, 남원농협미곡종합처리장이 공동 참여하여 남원참미 떡시식과 판촉을 추진한 결과 매장에 실시간 판매 1위의 실적을 올리며 10kg, 1,000포, 20kg 시 손을 씻고, 물은 반드시 끓여먹으며 날 음식과 익힌 음식은 구분하여 보관하고, 조리한 음식은 상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섭취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여름철을 맞아 식중독 발병률도 높아진 만큼, 가정 내 식중독 예방 3대요령(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준수가 가족건강을 지키기 위한 당부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며, 서울 수도권 매장에서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올해에도 남원시에서는 260여농가 305ha 남원농협과 계약재배를 추진해 유기물 함량 증대와 화학비료 절감을 추진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명품 '남원참미'를 생산 서울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소비자를 상대로 유통망 확대에 발 벗고 나섰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경찰서, 여성범죄 취약지역 선정 안전확보 주력

순창경찰서(최규은 서장)는 서울 강남역 살인사건 및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사건 등 최근 여성상대로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관내 원룸주변, 골목길, 공원, 화장실 등 여성범죄 취약지역을 선정해 범죄예방진 단점검을 실시 여성의 안전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순창경찰은 순창지역 5개 학교 관내에 혼자 거주하는 여성 교사를 상대로 학교 관사주변의 인적·물적 취약요인들을 선정하여 선제적으로 범죄분위기를 제압하기 위

해 실시한다고 전했다.

한편, 스마트폰을 이용한 목격자 제보 서비스인 '스마트 국민제보' 앱의 '여성불안신고' 코너를 통해 일상 속에서 여성이 불안감을 느끼는 지역과 인물에 대해 제보를 받고 있다.

이 코너에 불안요소를 제보하면 각 경찰서 마다 신설된 범죄예방진단팀(CPT)이 내용을 조사, 유관기능과 협조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해 줄 예정이다.

/순창=이영원 기자

순창경찰, 교통사망사고 간담회

순창경찰서(서장 최규은)는 최근 순창군 동계면 이동리 아담마을 입구 교차로 주변에서 발생한 교통사망사고에 대한 현장점검 및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현장점검에서는 경찰, 순창군,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교통공단 등 10여명이 참여하여 사고현장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시설개선 사항, 향후 안전대책 등 다각적으로 점검을 실시했으며 교통사망 사고 예방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교통사망사고는 이륜차 운전자가 T자형교차로에서 안전불감증으로 주행 차로를 운행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 도로에 진입하던중 직진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이륜차 운전자 안전모착용과 교통법규 준수 등 다각적 교육의 필요성과 시설물개선 노력등 교통환경 개선하는데 심층적인 토론을 진행했다.

최규은 서장은 "사고 후 점검도 중요하지만 사전 교통사고 발생 우려지점을 파악해 시설물 개선 등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며 더불어 "우리 모두가 교통법규를 준수해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순창을 함께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순창=이영원 기자

임실군, 박노규 준장 흉상 제막식

임실군과 오수창면협의회(회장 허재원)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오수면 출신 호국영웅 박노규 준장 흉상 제막식을 지난 10일 개최했다.

오수리 일원에서 진행된 이번 제막식은 심민 군수를 비롯한 문홍식 의장, 전북동부보훈지청장장과 군 보훈단체 회원, 오수지역 기관단체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국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호국영웅의 숭고한 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한편, 호국영웅 박노규 준장은 지난 1918년 3월 14일 오수면 출생으로 1946년 국방경비사관학교를 졸업 후 육군 소위로 군생활을 시작해 육군사관학교 교무처장, 수도경비사령부 작전참모를 역임했다.

6·25 전쟁 발발 시 6사단 제2연대 부연대장으로 춘천, 강릉, 이화령 전투에서 공을 세웠고 전투 후 적군 사망자 1천명을 물어주는 등 파란만장한 인재를 보여준 일화가 전해지고 있으며, 지난 1951년 3월 3일 경북 봉화군 일월산 전투에서 적군의 탄환에 맞아 순국했다.

이후 지난 1951년 4월 27일 태극무공훈장 수여와 육군 준장으로 추서됐으며, 현재는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다.

/임실=진종영 기자



고창군, 해리주민 방사능방재교육

고창군이 한빛원전 주변지역인 해리면 주민을 대상으로 방사능방재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지난 10일 해리면 주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리면사무소에서 열렸다.

이번 교육은 원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방사능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주민대피 및 행동요령을 교육하여 주민들의 방사능 방재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됐다.

강의는 영광방사능방재센터에서 근무하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김철수 박사가 원전현황 소개, 방사선 비상 종류, 원전사고 비상대응 조치, 방사선 비상시 행동요령, 해외 원전사고 사례, 원자력 기초설명 등으로 진행됐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앞으로 마을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는 사랑방 좌담회 방식의 순회교육을 자주 갖고 대규모 집합교육 시 발생하는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아울러 현장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원전 안전과 방재대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제이앤제이그래픽

J&J

GRAPHIC

간판, 현수막, 표찰, 현황판, 실사출력전문,
안전용품, 가구, 커튼, 차량랩핑

Tel. 063-633-1201

Fax. 063-633-1203

e-mail . 6331201@hanmail.net

구독문의 288-9700